

성경해석학

제 7 강

성경의 적용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7 강 성경의 적용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필요성(Necessity)	4
III. 연관성(Connections)	7
A. 하나님(God)	7
1. 영원한 작정(Eternal Counsel)	9
2. 성품(Character)	10
3.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s)	10
B. 세상(World)	11
C. 사람(People)	12
1. 죄 있는 형상(Sinful Images)	13
2. 종교적 구분(Religious Divisions)	14
3. 계층(Classes)	15
IV. 발전(Developments)	16
A. 시대적(Epochal)	16
B. 문화적(Cultural)	19
C. 개인적(Personal)	21
V. 결론(Conclusion)	22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7 강 성경의 적용(Applying Scripture)¹

I. 서론(INTRODUCTION)

일상 생활에서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되고 다른 것들은 매우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 기록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쓸모없게 되지 않을 한 권의 책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대로 성경을 소중히 여겨 왔다. 우리도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성경이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표준으로 남아 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경을 우리를 위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성경해석학** 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이며 그 제목은 "성경의 적용"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가 현대 독자들과 연관성이 있도록 하는 데 아주 유용한 몇 가지 적용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이 강좌에서 우리는 적용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¹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적용이란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가 현대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연관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원래의 의미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시했던 원래의 의미에 대한 정의를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원래의 의미란 하나님과 인간 저자들이 공동으로 그 본문이 최초의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개념들과 행위들과 감정들이다.

(스티븐 브레이머[Stephen J. Bramer] 박사)² 저자가 진정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이해해야 우리는 적용을 할 수 있다. 적용은 구절의 원래 의미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그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이 본문의 원래의 독자와 동일한 신학적 입장에 있는가? 우리는 모세 언약 아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언약 아래 있는가?” 그러므로 원래의 배경, 역사, 신학 및 문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가져올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발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하는 과정은 항상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적용 과정의 목표는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원래의 의미와 적용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원래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성경이 최초의 청중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미치려고 의도했던

² **Dr. Stephen J. Bramer** is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of Bible Exposition at Dallas Theological Seminary.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면, 적용이란 해석적 과정은 현대 청중이 이러한 모든 수준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본문의 원래 의미는 영감을 받고 권위를 지닌 의미이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문의 적절한 현대적 적용은 항상 그 원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현대적 적용은 현대의 시대, 문화, 개개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원래의 의미를 뛰어넘어야 한다.

(데니스 존슨[Dennis E. Johnson] 박사)³ 성경 본문의 원래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본문의 원래 의미의 핵심적인 요소는 본문의 원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래의 목적이란 하나님께서 그 본문이 최초의 청중, 최초의 독자에게 일으키도록 계획하신 변화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 그들의 기준 틀 곧 그 시점에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얼마나 성경을 접했는지에 비추어, 그리고 그들이 직면했던 시련과 유혹에 비추어, 성경 본문을 주시며 그들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일어날 변화를 설계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용하신 것이다. 사실, 원래의 의미는 최초의 청중의 삶에 성령님의 성화 사역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삶에 대한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대한 성령님의 목적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래의 상황에서 원래의 청중에게 그 본문을 주신 목적을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의 상황에서 그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실지에 대한 궤도가 더 분명하게 설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 설교자, 교사로서 우리가 본문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그 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차이가 생기도록

³ **Dr. Dennis E. Johnson** is Academic Dean and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at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의도하셨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목적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적용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래 의미와 현대 청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 사이에 일어난 몇
가지 주요 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적용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II. 필요성(NCESSITY)

야고보가 약 1:21-25 에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들어보라.

(약 1:21-25 개역개정)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성경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적용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정말 필요한가?

(대럴 북[Darrell L. Bock] 박사)⁴ 일상 생활과 연관지어 성경을 적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가치,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신학이 적용되는 맥락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태도들—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이유, 이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내가 보여야 할 연민의 종류 등—이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성경을 역사책이나 추상적인 신학책을 대하는 것처럼 연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차원을 도외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관계적이고 윤리적 차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적용을 갖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고전 10:11 에서 현대적 적용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고전 10:11 개역개정)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 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겪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바울은 고전 10:11 에서 이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바울은 원래 청중과 고린도 청중 사이의 연관성 또는 연속성을 고려하고 모세 시대와 자신의 시대 사이에 일어난 발전이나 변화를 고려하며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교회에 적용했다.

한편으로, 바울은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위한 경고로 기록되었다."라고 힘주어 말함으로써 두 청중을 연결시켰다. 바울이 이러한 연관을 만드는 것은

⁴ **Dr. Darrell L. Bock** is Executive Director of Cultural Engagement and Senior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Studies at Dallas Theological Seminary.

어렵지 않았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2 세대를 위해 기록된 책들이다. 이 책들은 출애굽 2 세대에게 출애굽 1 세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과 원래의 청중 사이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출애굽 2 세대처럼 고린도 교회도 실패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들이 원래 청중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경고로 기록된 것임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모세 시대 이후로 일어난 중요한 발전에 주목함으로써 자신의 적용을 정당화시켰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1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지만, 그것은 바울의 청중과 다른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성경의 기록은 구약의 경험들이 "말세를 만난" 교회를 위한 본보기와 경고가 되게 하였다.

"말세"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를 구별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다. 이 표현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은 원래 독자들에게는 없던 구속사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세보다 1,000 년 이상 뒤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원래 청중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말세를 만났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적용은 그러한 발전을 설명해야 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러한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나 교회에서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울이 구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마다 일어나는 기본적인 과정을 반영한다. 적용은 항상 원래의 청중과 현대의 청중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일어난 발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삶에 성경을 적절하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적용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 책들의 원래 독자와 현대 독자 사이의 많은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고찰할 것이다.

III. 연관성(CONNECTIONS)

성경 본문을 현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대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이나 연속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연관성을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고대 청중과 현대 청중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이 비슷한 세상에서 산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그들이 동일한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두 청중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사실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범주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A. 하나님(GOD)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의 모든 독자가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 즉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드려야 할 충성과 순종이 보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청중에게 주려고 했던 영향과 현대 청중에게 주려고 했던 영향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에릭 소우네스[K. Erik Thoennes] 박사)⁵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 완전성, 목적, 약속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곧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에 변함이 없으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성, 곧 그분이 그러한 특성을 소유한 정도에 변함이 없으시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곧 그분이 하기로 결정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시다. 넷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곧 그분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⁵ Dr. K. Erik Thoennes is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and is Chair of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Theology Department.

변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역동적이고 관계적이며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슬퍼하시며, 우리의 신실함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불변하시지만 관계적으로는 변하실 수 있다고들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을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 자신이 하시는 일을 어느 정도 조정하신다.

(글렌 스코기[Glen Scorgie] 박사)⁶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불변성이다. 그것은 많은 신학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어이다. 불변성은 "변하지 않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과 세상과 인간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덧없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덧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회전하는 우주의 정지점(still-point)이라고 묘사한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우리의 불안한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인가? 산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모두는 바위처럼 견고한 것, 신뢰할 수 있는 것, 영혼의 닻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심리적, 영적 욕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란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비활동적인 신은 쓸모없는 우상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피조물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을 하고 계신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올바르게 주장해 왔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즉 역사를 위한 궁극적인 계획은 불변하다.

⁶ Dr. Glen G. Scorgie is Professor of Theology at Bethel Seminary, San Diego.

1. 영원한 작정(Eternal Counsel)

기독교 전통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모든 일이 하나의 통일된 계획의 일부라는 점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지식을 사용하시며 자신이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 46:10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 46:10 개역개정)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바울은 엡 1:4, 11 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엡 1:4, 11 개역개정)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했다. 이 계획은 그분이 신자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때, 곧 예정하신 때부터 존재해 왔다. 물론 전통에 따라 예정의 개념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정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정은 그분의 영원한 작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작정을 따르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 작정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의 하나님 방식이 오늘날 하나님 방식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옛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슷하다. 왜냐하면 둘 다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의 불변하는 목적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본질, 위격,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2. 성품(Character)

확실히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그분의 성품의 어떤 측면들을 더 두드러지게 드러내신다. 때로는 자비를 더 드러내시고, 때로는 진노를 더 드러내신다. 때로는 전지하심을 더 드러내시고 때로는 전지하심을 숨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 즉 영원한 본성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약 1:17에서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약 1:17 개역개정)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성품은 성경의 원래 의미와 현대적 적용 사이에 항상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특정 구절이 하나님의 한 속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원래 청중은 항상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의 맥락에서 그 속성을 이해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청중도 하나님의 속성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성경의 강조점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은 항상 원래의 의미와 현대적 적용 사이의 유사성의 척도를 형성한다.

셋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약속들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으로 맹세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3.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s)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은 서약하시거나 언약을 맺으시거나 맹세하실 때만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민 23:19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민 23:19 개역개정)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자유롭게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 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처럼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 보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감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그 복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응답하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위협이나 축복의 제의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마음을 돌리셨던 것을 떠올려 보라.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바꾸셨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도 어기지 않으셨다. 언약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맹세를 통해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말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분의 언약의 약속들을 지키실 것임을 전제로 한다. 원래의 청중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해야 했고, 현대의 청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제안과 위협은 우리가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최초 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찰할 것이다.

B. 세상(WORLD)

오랜 세월 동안 철학자들은 세상이 안정된 것인지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씨름해 왔다. 일반적인 경험에 따르면, 여러 면에서 둘 모두 사실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항상 변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특징들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성경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옛 속담이 있다. 우리는 현재의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의 원래 독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빠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반대와 마귀의 적대에 직면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겨내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에 의존한다. 또한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규칙적인 패턴 곧 자연 법칙의 안정성도 볼 수 있다. 성경이 해가 뜨고 지는 것, 인간의 질병, 음식과 물의 필요성, 그 밖의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청중이 살았던 세상과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협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원래 청중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 사이에 중요한 유사점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출애굽기 20 장의 십계명은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필수적인 배경을 제공했다. 이 동일한 계명들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데 다시 사용되었다. 바울이 딤후 3:16-17 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 동일한 계명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왕조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윗의 위대한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의 배경을 제공했다. 계 22:16 과 같은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윗 계보의 왕으로서 영원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과 성경의 원래 청중의 세상 사이의 연관성은 성경의 적절한 현대적 적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청중이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비슷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원래 청중과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관점이 보여주는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C. 사람(PEOPLE)

현대인들은 성경을 처음 접한 사람들과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첫째로, 모든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살든 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둘째로, 모든 인간은 종교적으로 구분된다. 셋째로, 인류는 여전히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유사점을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1. 죄 있는 형상(Sinful Images)

창세기 1 장 27 절과 같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이 이성적, 언어적, 도덕적, 종교적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죄에 빠졌다. 오늘날 인간은 더 이상 이성적, 언어적, 도덕적, 종교적 능력을 사용하여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불신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신자들조차도 그분께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왕상 8:46 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다.

(루이스 오르테자[Luis Orteza] 박사)⁷ 조직신학에는 전적 부패/타락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이것은 인간 존재 전체, 인간의 사고와 감정과 행동이 모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명과 거룩한 표준에 어긋난다는 기본 가정을 전제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인간에게는 최악된 본성과 같은 것이 있다. 성경은 그것이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근본적인 문제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존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⁸ 특히 요즘 인류학과 사회학 연구에서 많이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인간에게 죄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인간 교육, 인간 발달, 인간 학습에 관한 이론은 원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왔다. 이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 우리 인간은 성취, 업적, 소유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지배당하며,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왜곡시킨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⁷ Dr. Luis Orteza is Adjunct Professor for Counseling at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⁸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사악한 자기중심적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경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의 경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른 많은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절대로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이며, 유인원 중 가장 공격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끔찍하게도 우리는 타락했지만 우리는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한다.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성경의 모든 수신자는 동일한 죄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의 모든 부분의 원래 의미는 이러한 인간 상태를 다루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이러한 특성들을 성경의 모든 원래 청중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점들은 모든 성경 본문에서 의미 있는 현대적 적용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경의 원래 청중과 현대의 청중은 죄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종교적으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2. 종교적 구분(Religious Divisions)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전해진 처음부터 성경의 독자들은 항상 불신자, 거짓 신자, 신자라는 세 가지 종교 그룹 중 하나에 속해 왔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 인간 그룹(불신자들)에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어본 많은 사람들도 포함된다.

거짓 신자들은 하나님께 피상적인 헌신을 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자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한 헌신을 한다. 그들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속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세 종교 그룹에 대한 성경의 현대적 적용은 이 세 종교 그룹에 대한 원래 적용과 매우 유사해야 한다. 불신자들에게 원래 성경은 죄를 억제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드러내며,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현대의 적용에서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적용한다. 거짓 신자들에게 원래 성경은 죄를 억제하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며,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현대의 적용에서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적용한다. 신자들에게 원래 성경은 그들의 죄를 억제하고, 실패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현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며 성경을 적용한다.

원래의 청중과 현대의 청중은 죄 있는 형상이라는 점과 종교적으로 구분되는 점 외에도 역사의 전반에 걸쳐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3. 계층(Classes)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정한 특성이나 속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늙고 어떤 사람은 젊다. 어떤 사람은 남자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이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 등등.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우리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주인, 하인, 친구,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행한 일에 따라 영웅과 범죄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는 목사나 농부처럼 직업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다. 성경의 원래 청중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특별히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화를 내는 사람, 사랑에 빠진 사람, 게으른 사람, 회개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 초점을 맞춘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남편, 아내, 자녀, 집사, 도둑, 고용원으로 밝혀진 사람들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구절들도 발견한다.

이러한 동일한 계층의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의 청중과 모든 후속 청중 사이에 의미있는 연관성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은 우리의 적용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대와 현대의 부자들은 부와 관련된 구절에서 비슷한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고대와 현대의 지도자들은 리더십에 관한 구절에서 비슷한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등등.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가 성경의 최초의 청중과 이러한 종류의 연관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성경 적용의 필요성을 탐구하고 원래의 청중과 현대의 청중 사이의 몇 가지 중요한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래의 청중과 현대의 청중 사이에 일어난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IV. 발전(DEVELOPMENTS)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때때로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말은 사실이다. 성경의 책들은 오래 전에 기록되었으며, 우리 대부분이 읽지 못하는 언어와 매우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도 성경의 원래 청중들의 삶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성경을 현대 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모든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나중 강의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차이점들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래로 일어났던 세 가지 주요 발전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볼 것이다. 그 세 가지 주요 발전이란 시대적 발전, 문화적 발전, 개인적인 발전으로 성경의 현대적 적용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 그럼 먼저 구속사에 있어서 시대적인 발전을 살펴보자.

A. 시대적(EPOCHAL)

기독교인들은 세계 역사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창조-타락-구원이란 세 단계로 자주 요약해 왔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신 것을 가리키고, 타락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가리키며, 구원은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길고 느린 구속의

과정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세상 안에서 그리고 저주받은 세상과 나란히 그분의 구원의 나라를 자비롭게 건설해 오셨다.

많은 신학자들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점진적 성격으로 인해 성경에 언급된 여러 시대 사이에 불연속성을 초래하는 시대적 발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 왔다. 아마도 가장 분명한 시대적 발전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다양한 언약에 따라 시대를 구분한다. 하나님의 다양한 언약으로 특히 언급되는 것은 구약에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관련된 언약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언약이다.

예를 들어, 속죄 제사에 관한 율법은 구속사의 여러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요구했다.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요구되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요구되었다. 신약 초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신약 후기에는 제사가 완전히 중단되었다.

(다니엘 김[Daniel L. Kim] 박사)⁹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사 승천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대—의 신자로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구약 사람들이 성경을 적용했던 방식과 달라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물론 전혀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 예를 들어, 제사 제도를 생각해 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적용이 거의 없다. 나는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 다시 말하면, 동물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동물에게 손을 얹은 후 그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가까운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 구속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⁹ Dr. Daniel L. Kim is Assista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로버트 리스터[Robert G. Lister] 박사)¹⁰ 우리가 어떤 구절을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 구절이 구속사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고 구속사에서 우리가 처한 경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구속사적 맥락에서 어떤 구절은 우리의 자신의 맥락과는 다른 경륜, 다른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다. ... 구약의 동물 제사에 관한 구절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결론은 “아, 나는 어디선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찾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내 죄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명백한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이것은 구속사 운영의 옛 언약적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신정 국가에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삶에는 적용되었지만 오늘날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항상 구절의 직접적인 문법적 맥락뿐만 아니라 구속사적 맥락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적절한 적용을 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는 여러 면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모든 나무는 씨앗에서 자라 묘목이 되고 결국 완전히 자란 나무로 성장한다. 나무가 될 모든 것은 처음 씨앗에 담겨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무는 성장하고 발달하여 결국 완전히 자란 나무가 된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성경 역사 전반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러한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발전 모델은 성경 전체가 우리와 관련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뿐만

¹⁰ **Dr. Robert G. Lister**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t the Talbot School of Theology.

아니라 이전의 계시는 항상 이후의 계시에 비추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준다.

시대적 발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성경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문화를 구분 짓는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자.

B. 문화적(CULTURAL)

성경의 원래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의 문화적 발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사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패턴은 무엇인가? 우리 문화는 어떻게 다윗의 문화와 비슷한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차이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인간 문화는 구약의 고대 사회와 어떻게 크게 달라졌는가? 어떤 관습과 관행이 다른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피터 워커[Peter Walker] 박사)¹¹ 성경이 기록된 문화는 분명히 우리 문화와 매우 달랐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농경 사회나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서구에 사는 우리의 경우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전환을 해야 한다. 룻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거래가 베들레헴 외곽 성문에서 이루어지던 주전 1000 년경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은 그 당시에 법적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아는가? 그 당시에 계약을 마무리할 때 신발을 벗어주며 일종의 악수 같은 것을 나누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은 좀 기괴하다.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합의를 하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다. 문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맺는 방법 등이 다르다. 모든 종류의 일은 서로 다른 문화적 표현을 갖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 점에 공감하며 성경에도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일들이 다르게 행해지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¹¹ Dr. Peter Walker is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Trinity School for Ministry.

거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 한다. 룯기에서 그 점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룯기에서처럼 신발을 벗지는 않더라도 사업 거래에서 도덕적 진실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데이빗 채프먼[David W. Chapman] 박사)¹²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며 그것을 원래 청중의 시대와 비교할 때, 우리는 적어도 신약 시대로부터 2,000 년, 구약 시대로부터 3,000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원래 청중의 경험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차이, 곧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기술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문화는 매우 시각적인 문화, 빠른 의사 소통 속도에 익숙한 문화,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매우 익숙한 문화이다. 고대에, 곧 2,000 년 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요한은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순환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다. 전달자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동할 때 아마도 여러 날이 걸렸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즉각적인 소통 같은 것은 없었다. 요한 계시록에서 매우 분명히 드러나는 또 다른 측면은 요한 계시록이 주로 들려주기 위한 책이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맨 처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한 사람)과 듣는 자들(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¹³ 이는 원래의 이해 방식, 즉 한 사람이 책 전체를 끝까지 읽어주며 청중으로 듣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에게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며 속도를 늦추는 것이

¹² **Dr. David W. Chapman**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and Archaeology at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¹³ [역자 주] 계 1:3 에서 개역개정은 개역이 잘 구분한 단수와 복수를 모두 단수로 통일하는 개악(改惡)을 했다. 개역: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개역개정: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매우 쉽다.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한 구절을 묵상하며 그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 반면에 원래 청중의 경우 22 개의 장이 한꺼번에 읽혔다. 따라서 책을 읽는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그 영향 중 하나는 요한 계시록의 원래 청중이 아마도 압도되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세부 사항을 알아내는 것에 대해 덜 걱정하고 대신 전체의 일반적인 의도를 이해해야 했고, 전체가 실제로 그들 자신의 감정에게 말하도록 허용해야 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이미지들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점점 더 많은 감동을 주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적 차이가 성경 읽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대적 발전과 문화적 발전 외에도, 우리는 성경의 원래 청중과 오늘날 사람들을 구분 짓는 개인적인 발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 개인적(PERSONAL)

성경 속 사람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현대인과 고대인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경 본문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이러한 개인적 차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개인적 삶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삶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성경의 여러 인물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은 성경 저자들의 생각, 행동, 감정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이렇게 고대인과 현대인의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원래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에 존재하는 시대적, 문화적, 개인적 발전을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측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우리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CONCLUSION)

성경 적용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래 의미를 현대의 상황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탐구했다. 우리는 성경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래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의 연관성을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 일어난 몇 가지 발전을 고찰하며, 이러한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적용을 현대 청중에 맞도록 조정하게 하는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는 성경이 후대들에 의해 무시되어도 상관없게 기록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처음 기록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연관성이 있고 유효하다. 우리는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일어난 발전을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